

국가별 동향



유럽

아비아젠 독일에 대단위 PS부화장 설립



아비아젠은 독일의 드레سن 지역에 대단위 종계

(PS)부화장을 설립하고 2월 4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이 부화장은 최신식 설비를 갖춘 부화장으로 한달에 약 백만수의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아비아젠은 부화장 설립을 통해 동부유럽과 서부유럽에 보다 원활한 육용 종계 병아리를 공급하게 되었다.(World poultry)



영국

콩(大豆) 없는 사료가 아마존을 살린다

영국의 유기농 식품 회사인 Abel&Cole社는 콩(대두) 함량을 대폭 낮춘 사료를 먹여 키운 닭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사료에는 일반적으로 콩이 들어간다. 닭이 자라

는데 꼭 필요한 기초영양소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있는데, 단백질의 대부분을 콩에서 섭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이는 대두 재배를 위해 아마존 열대우림이 개간되고 있다. 이에 따라 Abel&Cole社는 동물영양전문가인 Peter Coleman을 양계팀에 영입했다. 그는 아마존을 다녀온 후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친환경 사료를 만들었다. 새 사료는 약간의 콩과 완두콩, 포도씨꺼기, 해바라기, 밀 등을 사용한다. Abel&Cole社에서 생산되는 모든 닭고기는 콩 함량을 낮춘 새로운 사료를 먹고 자란다.(World Poultry)



중국

소비자들 닭고기 구입 꺼려

중국 당국의 위생 기준 강화 이후, 베이징의 양계농가들은 여전히 울상인 반면, 시장에서 닭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밝은 모습으로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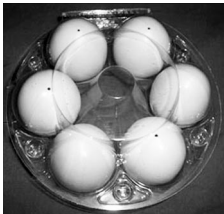
베이징 Dongjiao 시장에서는 보기에도 신선하고 위생적인 닭고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도매상인이나 소비자들은 예전만큼 닭고기를 찾고 있지 않다. AI 여파 때문이다.

상인들은 “평소 하루에 400kg 정도를 판매했으나 요즘은 250kg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익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닭 판매가 생업인데, 이렇게 계속 소비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앞날이 걱정이다.”며 애타는 심정을 토로했다.(www.poultrysite.com)



## 미 국

### 새롭게 선보인 계란 플라스틱 난좌



플로리다의 한 난좌업체에서 6개들이 플라스틱 난좌가 새롭게 디자인되어 출시되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계란 상태를 쉽게 볼 수 있으며, 휴대가 간편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동안 난좌를 만들어 온 이 회사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계란 소비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단가는 일반 30개들이 종이난좌 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Eggboxes)

### 계육에 염수 주사, 신기술 개발

미국의 Equimex社は 주사바늘을 사용하지 않고도 닭고기에 염수를 주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Equimex社에서 개발한 FlavorJet은 고압을 이용해 고기 속 세포에 균일하게 염수를 주입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주사바늘을 사용했을 때 발생했던 물집으로 인한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quimex社の 한 관계자는 “뼈가 있거나 뼈를 제거한 경우에 상관없이 모두 이용 가능하므로 기존의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 독창적인 육가공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제품은 2009 미국 아틀란타 양계박람회(IPE)에 출품, 소개 되었다.(World Poultry)

## 아시아

### 아시아 지역 VIV 일정 변경

VIV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VNU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에 아시아에서 개최될 VIV 행사가 일부 변경되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던 VIV 중국 박람회는 금년부터 매년 개최기로 하였으며, 금년에는 오는 10월 19~21일에 개최된다. 반면 2009년 11월에 개최기로 한 VIV 인도 박람회는 내년 2월 1~3일로 일정을 변경하였는데 장소는 뉴델리 보다 방갈로레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Asian poultry) **양계**